

# 고유섭과 탑파연구

박 경 식\*

- I. 서언
- II. 탑파연구
- III. 맺는말-탑파연구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 I. 서언

현존하는 수많은 불교문화재 중 질과 양적인 면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탑이다. 탑은 조성 재료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동양 삼국 중 이 땅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단연 석탑이다. 때문에 일제강점기부터 석탑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져 연구가 진행되었는 바,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를 최초로 주목한 분이 又玄 高裕燮(1905-1944) 선생이다.

선생은 비록 40세의 나이로 단명하셨지만, 우리나라 미술사 연구에 있어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업적을 남기셨다.<sup>1</sup> 때문에 근세를 살았던 학자로는 유일하게 연구업적과 삶에 대

\*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sup>1</sup> 선생의 연구업적은 『高裕燮 著作目錄』(又玄賞委員會, 1992. 9)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 성과는 『又玄高裕燮著作全集』으로 묶어 통문관에서 발간한 바 있다.

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sup>2</sup> 선생의 그 많은 논고는 우리 미술사를 한 눈에 꿰찬 慧眼과 깊은 통찰력에서 진행되었고, 미학에서부터 탐파, 불상, 도자, 회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망 하라고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면 누구나 탐파연구를 주목함에 주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sup>3</sup> 이는 선생께서 우리나라 미술사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과 질적인 면에서 탐파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완성도가 가장 높아 후대에 끼친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선생께서 남기신 석탑관련 논고를 통해 당시는 물론 후대에 끼친 학문적인 영역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선생께서 그토록 탐파연구에 몰두하셨던 원인과 더불어 우리 문화에 대한 열정을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평가를 할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아직 학문적으로 미숙한 필자가 미술사학자의 대스승인 선생의 학문세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 생각한다. 필자의 미숙함이 선생의 학문적 업적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 II. 탐파연구

선생께서 가장 헌신적으로 연구에 몰두하셨던 분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탐파이다. 선생은 대학에서 미학을 전공한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선생께서는 1925년 경성 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한 후, 1927년에 법문학부 철학과에 입학에 본격적으로 미학과 미술사를 전공했다. 이어 졸업한 해인 1930년 4월에 법문학부 미학 및 미술사 연구실의 조교로 임용된다. 이후 선생의 연구 영역은 한국미술사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한층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탐파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sup>2</sup> 선생의 삶과 학문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文明大, 「高裕變의 美術史學」, 『한국미술사학의 이론과 방법』(悅話堂, 1978); 金壬洙, 『高裕變研究』(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목수현, 『한국고미술 연구에 나타난 고유섭의 예술관 고찰』(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金英愛, 「高裕變의 生涯와 學問世界」, 『美術史學研究』 190 · 191(韓國美術史學會, 1991); 강병희, 「아직도 넘어서지 못한 탐파연구의 고전」, 『연사와 현실』 17(한국역사연구회, 1995).

<sup>3</sup> 선생의 탐파연구에 대해서는 秦弘燮, 「又玄先生과 塔婆研究」, 『高裕變 著作目錄』(又玄賞委員會, 1992. 9)에 수록되어 있다.

선생께서 지냈던 답과에 대한 열정과 연구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발표된 논문과 저서를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1>로 집약된다.

이 표를 보면 선생께서 집필하신 답과 관련 논고는 모두 11편이다. 이 중 석탑관련 주요 논문은 『韓國美術史及美學論考』, 『韓國塔婆의 研究』, 『韓國塔婆의 研究-各論草稿』에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논저는 모두 선생의 死後 황수영 선생의 주도하에 간행되어 햇빛을 보게 되었는바, 스승에 대한 제자로서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오늘날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필자의 주제가 선생의 답과연구에 대한 것이기에 관련 논저를 일일이 고찰해야 하지만, 지면 관계상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선생의 우리나라 석탑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특성으로 집약된다.

첫째, 철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미술사 연구에서 가장 기반을 이루는 것은 개개의 유물이 지닌 양식이다. 때문에 이를 위해 미술사를 공부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현지답사를 진행해 실측, 탐본, 사진촬영 등 고전적인 방법론을 동원하고 있다. 결국 미술사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인 바, 선생께서 바로 이러한 방법론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이다. 지금은 교통이

표 1 답과 관련 저작 목록

제목	수록 학술지	발표시기	수록된 책	수록면
朝鮮塔婆概說	『新興』 제6호	1932. 1	『韓國美術史及美學論考』	107-121
朝鮮의 塼塔에 對하여	『學海』 2輯	1935. 12	『韓國美術史及美學論考』	123-132
所爲開國寺塔에 對하여	『考古學』 9권 9호	1938. 9	『韓國美術史及美學論考』	133-144
所爲開國寺塔에 對하여 補	『考古學』 10권 7호	1939. 7	『韓國美術史及美學論考』	145-148
扶蘇山敬天寺塔	『高麗時報』	1940. 9. 16	『松都古蹟』	181-183
佛國寺의 舍利塔	『清閑』 15책	1943	『韓國美術史及美學論考』	149-164
朝鮮의 墓塔에 對하여			『朝鮮美術史料』	
朝鮮塔婆의 研究(其 1)	『震檀學報』 6, 10, 14권	1936. 9 -1940. 6	『韓國塔婆의 研究』 (乙酉文化社 刊)	1-129
朝鮮塔婆의 研究(其 2)	미발표 유고	1943년 가을 -작고직전	『韓國塔婆의 研究』 (乙酉文化社 刊)	131-256
韓國塔婆의 樣式變遷	미발표 유고 『東方學志』 2	1955. 12	『韓國塔婆의 研究- 各論草稿』 (考古美術同人會 刊)	高裕燮 遺著 其3
韓國塔婆의 樣式變遷 (各論 續)	미발표유고 『佛教學報』 3·4合輯	1967. 8	『韓國塔婆의 研究』 (同和出版社 刊)	225-260

편리하고,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가히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1930년대 우리나라의 도로사정에 대해서는 짐작하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서 선생은 평안북도 영변에서 전라남도 장흥에 이르는 그야말로 전국을 누비며 직접 답사하였다. 특히 경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였던지 신라석탑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라석탑에 대한 연구는 완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선생께서 집필한 원고 가운데서 직접 탑을 조사·기록해서 연구한 각 석탑에 대한 각론이 106기의 석탑이 세밀하게 기록된 점은 당시의 실정으로 볼 때 이 방면 연구에 기울었던 선생의 열정에 경이롭다는 표현밖에 할 말이 없다. 뿐만 아니라 2005년 11월 현재 국보로 지정된 석조문화재는 65점으로, 이 중 석탑은 28점, 부도는 8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다. 보물 역시 468점의 석조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중 석탑은 158점, 부도는 47점으로 44%를 점유하고 있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석조문화재는 모두 533점으로, 선생께서 조사하신 106점의 석조문화재가 대부분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 있음은 유물을 선별하는 뛰어난 혜안과 정보를 가졌음도 알 수 있다. 오늘날 석조문화재를 공부하는 연구자의 수가 미술사의 어떤 분야보다 적은 인원임을 감안하면 선생의 정열과 노력에 머리가 숙여질 뿐이다. 우리는 너무 안이하고 게으른 것이다.

선생께서 직접 답사하고 각론으로 양식을 상세히 고찰했던 석탑을 지역별로 정리하면 <표 2>로 집약된다.

선생의 현지 조사가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했는가는 이들 석탑의 양식을 정밀히 기술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각 부위에 대한 실측치가 소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양식의 정확한 규명을 통해 향후 이를 종합해야 보다 진전된 연구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기본에 충실했던 연구방법론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조사된 각 석탑은 정밀한 양식규명과 더불어 사진촬영이 진행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1934년에 경성대학 강의실에서 《朝鮮의 塔婆 寫眞展》을 열었음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sup>4</sup> 당시 사진전은 선생의 학문에 대한 열정에 경성제국대학 사진실의 설비와 스승인 上野교수와 사진기사인 엔조우지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sup>5</sup> 이 사진전은 큰 호응을 얻어 시내 한복판에 있는 백화점으로 전시가 이어졌다고 한

<sup>4</sup> 진홍섭, 앞의 글. 이 사진전이 있는 후 대단한 반향을 일으켜 미쓰코시백화점(三越百貨店, 현 신세계백화점)의 갤러리를 빌려 석탑 중심으로 고미술사진전이 열렸다고 한다. 김영애, 앞의 논문, p.145.

<sup>5</sup> 주 4와 같음.

표 2 각론으로 정리된 석탑 현황

행정구역	개체수	석탑명
서울시	3기	서울推定沙峴寺址五層石塔, 漆谷廢淨兜寺五層石塔, 原州廢傳令寺三層石塔
경기도	9기	開城玄化寺塔, 開豐靈通寺五層塔及三層塔, 開豐觀音寺七層石塔, 開豐軍藏山北麓寺址三層石塔, 長湍佛日寺址五層石塔, 長湍華藏寺塔, 利川廢安興寺五層石塔, 驪州神勒寺五層塔
강원도	12기	春川昭陽寺七層石塔, 江陵神福寺址三層石塔, 原州居頓寺址三層石塔, 原州法興寺址三層石塔, 鐵原到彼岸寺三層石塔, 平昌月精寺八角九層塔, 襄陽洛山寺七層塔, 高城神溪寺三層塔, 淮陽長淵寺址三層石塔, 淮陽正陽寺三層石塔, 金剛山麻岫寺塔, 襄陽香城寺址三層石塔
충청남도	4기	靑陽邑內三層塔, 靑陽西亭里九層塔, 恩津灌燭寺塔, 扶餘定林寺址石塔
충청북도	2기	忠州塔亭里七層石塔(中央塔), 報恩法住寺木造五層塔
경상남도	9기	東萊梵魚寺三層塔, 梁山通度寺三層石塔, 陝川海印寺三層石塔, 陝川海印寺紅霞文前三層石塔, 昌寧述亭里三層石塔, 陝川月光寺址東三層石塔, 陝川清涼寺三層石塔, 通度寺金剛戒壇舍利塔, 山淸閣(谷)寺址右三層石塔
경상북도	45기	慶州南山里寺址東三層塔, 慶州西岳里三層石塔, 安東邑東法興洞七層塔, 安東邑南五層塔, 安東一直面造塔洞五層塔, 義城觀德洞三層石塔, 義城水山下逸名寺址五層石塔, 善山竹杖寺址五層石塔, 善山洛山洞三層石塔, 尙州化達里三層石塔, 聞慶鳳岩寺三層石塔, 聞慶鳳岩寺智證國師寂照之塔, 聞慶鳳岩寺靜眞大師圓悟之塔, 醴泉栢田洞廢寺址三層塔, 醴泉開心寺址五層石塔, 達城桐華寺金堂庵東西三層塔, 達城桐華寺毘盧庵三層塔, 永川新月洞三層塔, 淸道雲門寺東西三層塔, 星州法水寺址三層石塔, 慶州芬皇寺石塔, 義城塔里五層石塔, 慶州高仙寺址五層石塔, 慶州感恩寺址東西三層石塔, 慶州羅原里五層石塔, 慶州狼山東麓廢寺址三層石塔, 慶州獐項里廢寺址東西五層石塔, 慶州千軍里廢寺址東西三層石塔, 慶州佛國寺釋迦三層石塔, 淸道鳳岐洞三層石塔, 慶州遠願寺址東西三層石塔, 金泉廢葛項寺東西三層石塔, 慶州明莊里三層石塔, 慶州長壽谷廢寺址三層石塔, 榮州浮石寺三層石塔, 安東玉洞三層石塔, 慶州南山東麓逸名寺址西三層石塔, 慶州哀公寺址三層石塔, 慶州南沙里塔谷三層石塔, 佛國寺多寶塔, 慶州南山僧燒谷三層石塔, 慶州茸長寺址三層石塔-附 三層圓佛座, 慶州淨惠寺十三層石塔, 佛國寺舍利塔, 石窟庵三層石塔
전라남도	8기	光州五層塔, 求禮華嚴寺塔, 長興寶林寺東西三層塔, 康津無爲岬寺塔, 靈岩道岬寺塔, 和順雙峰山啟澈鑑禪師澄照之塔, 順天松廣寺佛日普照國師甘露塔, 和順雙峰寺大雄殿
전라북도	5기	益山王宮里逸名寺址五層石塔, 益山彌勒寺址多層石塔, 金山寺舍利塔 및 五層石塔, 金山寺六角多層石塔, 金山寺露塔
황해도	4기	海州冰庫側五層石塔, 延白江西寺七層石塔, 黃州成佛寺五層塔, 碧城廣照寺址五層石塔
평안남도	3기	平壤永明寺八角五層塔, 大同廢栗寺五層石塔, 大同廢元廣寺六角七層石塔
평안북도	2기	寧邊普賢寺九層石塔, 寧邊普賢寺八角十三層石塔
계	106기	

다. 이 같은 과정을 볼 때 선생의 현지 조사는 문헌, 양식, 기록, 실측, 사진촬영 등 미술사의 조사방법론이 모두 동원된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문헌고증에 충실했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미술사연구는 전 국토에 숨겨져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이를 세상에 알리는 작업에 중심을 이루어왔다. 이와 같은 경향은 1970년까지도 지속되었는바, 한 차원 높은 미술사연구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때문에 이시기의 연구에서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제외하면 다른 문헌의 활용도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선생의 논저를 보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물론 각종 지리지와 더불어 문집류까지 인용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 대체 선생의 학문적 깊이는 어디일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 각 석탑의 각론에서는 양식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물론 이와 관련된 각종 문헌까지 모두 찾아 소개하고 있어 오늘날 이 방면 연구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헌에 대한 충실함은 목탑의 발달사는 물론 미륵사지석탑, 감은사지석탑 등 우리나라 석탑의 발달사에 있어 초두에 놓이는 탑들에 대한 건립연대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양식론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역사적 상황까지도 포함하는 연구를 했다는 점이다.

석조조형물을 단순히 옛 것의 수준에서 바라본다면, 아마도 아름다움이 연구의 전부였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의 연구는 이보다 진전되어 석탑이라는 건축물을 역사의 소산이란 인식하에서 바라보았다. 때문에 석탑 양식의 변화에 따른 시간적 구분이 가능해 졌는바, 이를 감은사지삼층석탑, 불국사삼층석탑과 다보탑의 출현 등에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다. 감은사지삼층석탑에서는 탑이 지닌 특징을 양식적으로 규명했을 뿐만 아니라 문무왕과 신문왕대의 역사를 철저히 분석해 동해구를 주목하였고, 이는 문무왕릉의 지목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국사 삼층석탑과 다보탑에서는 경덕왕대의 상황을 통해 신라석탑이 양식적으로 완성되고, 특수형 석탑이 건립될 수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 경향은 1980년 후반에 들어 미술사와 시대사를 연계해 연구하고자 하는 풍토가 시작되고 있음을 볼 때, 선생에 비해 후학들이 지녔던 석탑연구의 한계성을 반성케 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넷째, 석탑은 양식의 근원을 목탑에 두고 있다.

동아시아에 불교가 전래되고, 동시에 탑과 불상이 조성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自國의 실정에 맞는 재료를 선택해야만 했을 때, 우리나라는 석탑을 건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석탑을 건립할 때 어떤 조형물은 무엇을 염두에 두었을까? 라는 문제는 아마도 큰 숙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우리나라 석탑의 양식사는 물론 발달사를 규명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생은 미륵사지석탑

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한 끝에 한국석탑의 기원이 목탑의 양식을 재현하는데 있음을 명쾌하게 규명하고 있다. 『韓國塔婆의 研究』(乙酉文化社 刊)의 서술체계를 볼 때 목조탑과를 가장 초두에 놓고 있다. 선생은 삼국시대 이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건립된 우리나라의 목탑에 대해 철저한 문헌고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전탑을 고찰하고 있으나, 이 땅에서는 그리 발전되지 못함을 논증하고 있다. 석탑에 대한 고찰은 제3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바, 미륵사지석탑을 가장 먼저 건립된 것으로 보면서 “現存 조선에 남아있는 석탑으로선 가장 충실히 목조탑과의 양식을 再現하고 있는 唯一의 것이니 …”<sup>6</sup>라 전제하고, 이에 구현된 양식을 상세히 고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탑 역시 목조건축의 충실한 재현에 있음을 안동 신세동 칠층전탑을 예로 들어 규명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석탑의 기원을 목탑에서 가져온 선생의 학설은 지금에 이르러도 추호의 의심 없이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 한국석탑에 대한 연구가 선생의 수제자였던 황수영·진홍섭 선생에 의해 한층 심화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던 주된 원인 중의 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석탑을 논할 때 ‘목탑의 양식에 충실한 재현’이라는 표현을 씬에 주저함이 없음을, 석탑의 발생에 대한 선생의 논지가 얼마나 정확했는가를 알려주는 한 대목이라 하겠다.

다섯째, 우리나라 석탑의 발달사를 정립했다.

선생의 연구는 양식사의 철저한 규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사료를 동원해 당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분석이 더해지고 있다. 때문에 선생의 연구에서는 석탑을 개별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이를 통합하고자 했다. 즉 같은 양식을 지닌 석탑을 일군으로 묶어 양식적인 공통성을 추출했고, 이를 발전시켜 始原期·典型期·定型期라는 석탑의 발전 법칙을 완성했다.

선생은 “조선석탑의 始原 形式은 彌勒塔·定林塔·盈尼山塔<sup>7</sup>의 三基일 뿐이요 이 三者를 비교한다면 形式이 如一하지 아니한 個性을 각 탑에서 볼 수 있다(특히 그 옥개석 수법을 두고 말함). 즉 모두가 형식의 發生初에 처하여 있고, 형식 決定의 地位에 다다른 것이 아니다.”<sup>8</sup>라고 규명하고 있다. 이어 전형기 양식에 감은사지동·서삼층석탑과 고선사지삼층석탑

<sup>6</sup> 高裕燮, 『韓國塔婆의 研究』(乙酉文化社, 1948), p.34.

<sup>7</sup> 의성 탑리오층석탑을 지칭함.

<sup>8</sup> 高裕燮, 앞의 책, p.51.

을 두었는데, “在來의 試驗的이었던 모든 수법이 集成되어 整頓되었고 新式의 건축양식을 加味하여 完전히 통일된 석탑 양식으로서의 完體가 성립된 것이다.”<sup>9</sup>라고 정의했다. 황수영 선생 역시 이 시기의 석탑을 “古新羅와 백제에서 각기 계통을 달리하고 발생하였던 석탑 양식이 하나로 종합되면서, 마침내는 신라석탑으로서의 새로운 양식을 정립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새로운 석탑 양식을 가르켜 신라석탑의 典型樣式이라 부른다.”<sup>10</sup>라고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르러 백제와 신라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시작했던 시원기 석탑의 모든 양식을 총 정리·집성해 신라 나름대로의 석탑 양식을 정립했음을 보여주는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후 정형기에 이르러 신라석탑은 완전한 양식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바, 우현 선생은

불국사삼층석탑을 표준으로 한다면 장항리 일명사지 오중탑 雙基가 선행할 수 있고, 천군리 일명사지 오중탑 쌍기가 병행될 수 있겠고 창령 술정리 동부일명사지탑이 불국사삼층탑과 갈항사지 삼중탑과 사이에 있을 수 있을 듯하고 명장리 일명사지 삼중탑은 폐갈항사지탑이나 장수사지 삼중탑보다 纖弱한 듯하다. 이리하여 대체에 있어서 제3기의 중요한 작품들이 중대 후반의 경덕왕대를 중심으로 그 前後에 소속될 것이 추정되는 바이다. 즉 제3기 작품의 세대는 중대 후기에 대체로 설정되는 所以然이다.<sup>11</sup>

라고 주창하여 8세기 중반에 이르러 우리나라 석탑의 양식이 정착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석탑의 발전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진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는 불변의 원칙으로 지켜지고 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고, 깨뜨릴 수도 없는 학설을 주창한 것이다. 새로운 학설이 발표되면 그리 오래되지 못해 이를 능가하는 또 다른 견해가 나오는 학문의 풍토를 볼 때 하나의 이론이 60여 년의 세월을 지탱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선생의 석탑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했는가를 입증하는 한 대목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연구의 방법론도 다양하게 진행되었음도 알 수 있다.

선생께서 발표하신 최초의 석탑 관련 논문은 1932년 1월에 발표한 「朝鮮 塔婆 概說」이다.

<sup>9</sup> 高裕燮, 『韓國塔婆의 研究』(乙酉文化社, 1948), p.53.

<sup>10</sup> 黃壽永, 「石塔(I)-典型期的 石塔」, 『考古美術』 158·159(韓國美術史學會, 1983), p.2.

<sup>11</sup> 高裕燮, 앞의 책, p.95.

이 논문은 선생께서 발표하신 수많은 논고 중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된 것임을 볼 때 미학 및 미술사 연구실 조교로 임용된 후 석탑연구에 가장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논문에서는 「朝鮮의 造塔 起源」, 「內容的 分類」, 「材料的 分類」, 「平面形式의 分類」로 구성되었는데, 석탑의 건립요건을 “첫째, 가람배치의 규약상 필수적으로 건립된 것, 둘째, 佛體와 동등가치의 것으로 취급되어 結緣追福을 위하여 일반승려의 손으로 인하여 건립된 것, 셋째, 高德을 表揚하기 위하여 墓標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라고 분류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석탑이 건립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지금도 가람배치와 願塔, 그리고 부도 연구에 반드시 인용되는 성과임을 볼 때 선생께서는 양식사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석탑이 건립되는 근본적인 원인의 규명에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라와 백제의 석탑이 발전되는 경로를 모두 목탑에 근원을 두면서도 신라는 전탑의 영향을 받아 석탑으로, 백제는 바로 석탑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조선석탑의 평면형식을 크게 9가지 형식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 논문에서 현존하는 석탑의 특성을 대부분 파악했고, 이후 발표될 「朝鮮塔婆의 研究-其一·二」의 골격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석탑연구에 불교 교리는 물론 가람배치까지 동원해 여러 측면에서 이를 조명하고 있다.

「朝鮮塔婆의 研究-其一」이 우리나라 석탑 양식 발달사를 정립한 논문이라면, 1943년 가을부터 임종 직전까지 집필하신 「朝鮮塔婆의 研究-其二」는 우리나라 석탑의 이론적인 면을 정리한 논문으로, 「塔婆의 意義」로부터 「朝鮮의 工藝的 諸塔」에 이르는 7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伽藍 造營과 堂塔 價値의 變遷」에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해동고승전』 등의 문헌에 기록된 모든 사찰의 현황을 국가 및 시대별로 추출해 분석한 후, 당시에 진행된 발굴조사 성과를 더해 삼국의 가람배치를 규명하고 있다. 이 결과 고구려에서는 팔각목탑과 함께 3개의 금당이 존재한 一塔三金堂式 가람배치였음을 밝히고 있다. 백제는 一塔一金堂制가 확립되었고, 이는 일본의 가람배치에 영향을 주었음도 규명했다. 아울러 미륵사지는 ‘品자형’ 가람배치로 추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굴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금당과 탑지의 규모를 비교 분석해 ‘시대가 하강함에 따라서 금당면적에 대한 불탑의 면적이 축소되어 가는 현상’을 밝히고 있다. 결국 삼국시대의 사찰의 조영에서 堂·탑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규명했음과 동시에 탑을 중심으로 가람이 배치되고 있음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통일신라시대에는 쌍탑가람이 유행했음도 밝히고 있는데, 이는 “金堂에 대한 탑

의 價値의 低下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쌍탑식 가람의 출현은 설사 그 本流는 唐朝 가람형식의 영향에서 出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관념은 도리어 法華 信仰의 流布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 결국 선생은 통일신라시대에 나타는 쌍탑가람이 시대가 흐를수록 탑의 가치가 저하되고 있다는 점과 범화신앙의 유포라는 양 측면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쌍탑의 출현배경에 후자의 견해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 석가탑과 다보탑에 “釋迦如來常住說法, 多寶如來常住證明”의 논리가 정착된 것으로 보았다.

오늘날 많은 사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가람배치는 어느 정도 규명되었다. 하지만, 발굴조사 결과가 미미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고고학적 성과, 문헌분석, 현지답사의 결과를 각각도로 분석해 내린 그 결론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석탑연구에 교리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법화경을 중심으로 논증했다. 따라서 미술사학자였던 선생의 연구 방향은 양식사의 범주를 벗어나 고고학적 연구성과의 도입, 경전에 대한 해석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佛舍利와 伽藍創立緣起의 變遷」에서는 삼국시대 사리의 전래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소개해 탑의 건립에는 사리신앙이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대가 지날수록 “일종의 현세이익의 裨補 觀念에 의한 造佛 造寺業도 많이 행하여져”라고 기술해 탑을 건립하는 동기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선생의 주장은 1960년대 이후 많은 석탑에 대한 해체 보수시 출토된 탑지를 분석해 볼 때, 그의 연구가 얼마나 정밀했는가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탑지의 분석을 통해 선생 석탑의 건립에 국왕, 왕족 및 귀족, 호족, 평민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계층에 의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각 계층의 念願이 깃든 願塔의 건립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식사와 더불어 진행된 일련의 연구는 석탑이 비록 문자로 남은 역사는 아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건조물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본질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III. 맺는말 - 탑과연구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생의 탑과연구는 무한대의 영역으로 펼쳐졌다. 만약 선생께서 더 오래 학문연구에 전념하였더라면, 아마도 우리나라 미술사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은 지금에 비해 한층 더 심화되었을 것임은 분명할 것이다.

선생께서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탑파를 비롯한 우리의 미술문화에 대해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그중에서도 유독 탑파에 관해서는 후세의 미술사가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보다는 남기 어려운 두터운 업적을 남기셨다. 때문에 무엇이 그토록 이 땅의 탑이 선생을 매료시키고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하였을까에 대한 의문은 이 방면 공부를 하고 있는 필자 역시 오랜 숙제로 남아있다. 이 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결론에 대해 고자 한다.

선생은 1925년 3월 1일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그 해에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했다.<sup>12</sup> 그랬기에 자부심 또한 대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졸업 후 법문학부 미학 및 미술사연구실의 조교를 거쳐 1934년 4월에 개성박물관장으로 취임했고, 5월에는 진단학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탑파에 관한 연구는 개성박물관장 시절에 많은 진전을 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점은 일제에 의한 문화말살정책이 극성을 부리던 시기였다. 1930년대에 이르러 한글로 발간되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되었고, 조선어학회 사건, 진단학회의 학술활동 중지 등 그야말로 우리 문화와 연관된 것은 모두 숨을 죽이던 시기였다. 하지만 1935년 12월 「朝鮮의 博塔에 對하여」를 필두로 1936년에 이르기까지 「조선탑파의 연구」가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문화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것도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왜 선생은 그토록 어렵던 시절에 가장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석탑연구에 헌신했을까?

석탑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기에, 다른 연구에 비해 조사범위가 전국적이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이 같은 답사 여행은 암울한 시절의 정신적 고뇌를 떨치기에 더 없이 좋은 소재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전국 도처에 산재한 석탑들이 지닌 순백의 색감과 당당함, 웅건함이 마치 민족정신과 기개를 대변하기에 충분했고, 이를 통해 시대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한 미술사가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장지연, 박은식, 신채호 등의 사학자들은 역사상 위대한 인물을 부각시켜 민족의 기개와 자존심을 높이려 했다. 이 같은 당시의 학문풍토는 선생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뛰어난 수재였던 선생이 민족이 처했던 상황을 방관하지 않은 않았을 것이라 짐작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족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비단 이 같은 영웅주의 사관만이 아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 누구나 보고 느낄 수 있

---

<sup>12</sup> 金英愛, 앞의 논문, p.128.

는 문화유산 또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때 가장 훌륭한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선생께서 석탑연구에 매진했던 기본적인 사고는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려 민족의 자존심과 기개를 高揚하고자 했던'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생각된다. 1934년에 경성대학 강의실에서 개최했던 《朝鮮의 塔婆寫眞展》이 어떠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선생께서 깊숙이 관여되어 있음은 전시회를 통해 조선 사람들에게는 문화재를 통한 계몽과 자긍심의 고취를, 일본인에게는 우리 문화의 우수함을 알릴 수 있는 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황수영 선생께서 "선생과 고적을 찾아다니며 민족을 생각하였다."<sup>13</sup>고 하신 것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다분히 선생의 영향이었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이다. 선생이 민족정신을 찾자는 취지로 결성된 五明會의 창단 멤버였음을 보아도<sup>14</sup>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선생 별세 직후 개성시만 사이에 떠돌았던 개성 소주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은 그 까닭이 있는 것일까. 일제 말의 시국을 생각해 볼 때 선생이 그 울적한 심정을 달래기 위하여 과음한 까닭도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 병석에서도 여러 차례 일본의 패전과 우리의 新生을 예언하시면서 再起를 염원하신 보람도 없이 그 달 26일 오후 40의 짧은 생애를 끝내셨다."라고 기술한 황수영 선생의 회고담을 볼 때,<sup>15</sup> 선생의 나라생각은 당신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간절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뿐만 아니라 선생의 주치의였던 박병호씨는 "又玄형이 한참 불혹의 나이로 학자적 의욕에 불타던 그가 단명한 원인도 술이 아니었던가 믿어진다. 그도 그럴것이 그 당시 일제의 斷末魔的 조작으로 조선어학회 사건이니 무어니 하여 애국지사, 학자, 청년들을 수없이 감옥으로 집어넣을 때 우현형만 평안히 서재에서 연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울분과 고독을 잊어버리려고 취한 길 이 역시 술이 아니었던가. 그를 빼앗아 간 病 '肝硬變症'은 이제나 그때나 한번 걸리면 완치시키기 어려운 병이다."<sup>16</sup>라고 회고하면서 황수영 선생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선생은 당시의 많은 지식인들처럼 나라 잃은 설음과 울분을 끝내 술로 달래다 단명한 것이다. 그러나 타계의 직접 원인이 과음으로 인한 肝硬變症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나라의 운명을 애타게 바라보던 지식인의 절규였다고 생각한다.

그간 우현 선생에 대한 평가는 순수학문적인 측면에서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선생

<sup>13</sup> 黃壽永, 「脫線本業. 考古美術史學家가 된 經濟學者」, 『京鄉新聞』(1967. 6. 26), 김영애,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sup>14</sup> 金英愛, 앞의 논문, p.135.

<sup>15</sup> 黃壽永, 「又玄 50周忌에 생각나는 일들」, 『文化史學』 창간호(韓國文化史研究會, 1994. 6), p.12.

<sup>16</sup> 朴炳浩, 「高裕變先生을 追慕함-그의 20周忌를 맞이하면서」, 앞의 책, 우현상위원회, p.81.

께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탑파연구는 문화의 암흑기와 같았던 193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좀더 다양한 각도에서도 조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선생은 탑파연구를 통해 우리의 문화가 강건한 기반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이를 통해 일본보다 더 우수한 문화가 이 땅에 있음을 당시의 지식층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전파했다. 마치 독립군이 무기를 들고 일제에 대항하고, 사학자는 영웅주의 사관으로 국민의 정신을 계몽했듯이 선생은 문화유산을 통해 이를 실현시켰던 것이다. 때문에 동양 삼국 중 오직 이 땅에서만 그토록 발전했던 석탑연구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면 잘못된 해석일까?

선생의 탄신 100주기를 맞아 그의 학문세계에 대한 연구는 순수학문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當代에 활동했던 민족주의 사학자들과 같이 문화유산을 통해 민족의 기개와 자존심을 높여 했던 측면에서도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주제어(key words) — 高裕燮(Go Yuseop), 『韓國美術史及美學論考』(*Studies in Korean Art History and Aesthetics*), 『韓國塔婆의 研究』(*A Study of Korean Buddhist Pagodas*), 『韓國塔婆의 研究—各論草稿』(*A Study of Korean Buddhist Pagodas: Preliminary Writings*), 石塔(A Stone Stupa), 木塔(A Wooden Stupa), 民族主義(Nationalism in Korea).

## 국문초록

일제강점기부터 석탑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 바,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를 최초로 주목한 분이 又玄 高裕燮 선생이다. 선생의 연구는 미학에서부터 탑파, 불상, 도자, 회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하나를 꼽으라면 누구나 탑파연구를 주목함에 주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생께서 집필하신 탑파 관련 논고는 모두 11편으로 『韓國美術史及美學論考』, 『韓國塔婆의 研究』, 『韓國塔婆의 研究 - 各論草稿』에 수록되어 있다.

선생의 우리나라 석탑에 대한 연구는 철저한 현지조사와 문헌고증을 바탕으로 양식론과 역사적 상황의 접목은 물론 불교교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석탑의 양식 근원은 목탑에 두고 있음을 규명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석탑의 발달사를 정립했다.

선생의 탑파연구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우리 문화의 암흑기와 같았던 193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그간의 순수학문적인 평가에서 진일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탑파연구를 통해 우리의 문화가 강건한 기반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이를 통해 일본보다 더 우수한 문화가 이 땅에 있음을 당시의 지식층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전파했다. 그러므로 선생의 학문세계에 대한 평가는 當代에 활동했던 민족주의 사학자들과 같은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석탑을 비롯한 문화유산은 통해 민족의 기개와 자존심을 높여려 했던 측면에서도 조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ABSTRACT

# Go Yuseop and the Study of Buddhist Pagodas

**Park Kyoungshik**

The modern scholarship of Korean Buddhist pagodas started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first Korean who studied stone pagodas was Woohyeon Go Yuseop. He studied various subjects such as aesthetics, stone pagodas, Buddhist sculptures, ceramics and paintings. Among his diverse achievements, the most notable one was on stone pagodas. He wrote many books and articles. Especially, he wrote eleven articles about stone pagodas. They were published in such works as *Studies in Korean Art History and Aesthetics* (韓國美術史及美學論考), *A Study of Korean Buddhist Pagodas* (韓國塔婆의 研究), *A Study of Korean Buddhist Pagodas: Preliminary Writings* (韓國塔婆의 研究 - 各論草稿).

He explored in depth stone pagodas. When he wrote on a stone pagoda, he always conducted field survey and examined Buddhist and historic circumstance to support his theory. Also he researched styles of pagodas in various periods. With his study, he proposed that the stone pagoda style originated in wooden pagodas. This is one of his greatest scholarly accomplishment. Another important contribution is the stylistic classification of Korean Buddhist pagodas.

Most of his works were done during 1930s, which was a dark age for Korean people due to the severe colonial oppression of the Japanese. In this period, he demonstrated that Korea has a long and great cultural tradition. He also reminded Korean people of that historically Korean culture was superior to Japanese culture.

Go Yuseop stands high in this period along with other nationalist historians for his endeavor to help Koreans recover pride through the knowledge of Korean culture.